

한라시론



진 관 훈
제주문화유산연구원·경제학박사

OECD 전망치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한국의 명목 성장률을 약 10.4%로 추정했다. 2002년 이후 24년만의 두 자릿수 성장률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주도했다. 한국은행 발표 기준 올해 1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했다. 반도체 가격 급등과 수출 호조에 따른 명목 수출 증가 영향이다.

2025년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약 7094억 달러)를 돌파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와 전력기기(변압기

우리만 힘든 걸까?

등) 수출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반도체 열풍을 타고 제주 지역 수출액 역시 크게 늘었다. 올해 5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중동 전쟁과 관세 전쟁이란 유례 없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잘나간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K-제조업 덕분이다. 수출 증가→제조업 생산 확대→설비투자 회복의 선순환 성장 고리가 활발히 작동 중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경제는 K-제조업을 발판으로 K-성장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 문제는 K-성장의 실체가 K자형 성장이라는 데 있다. K자형 성장이란 한 나라 경제가 좋은 쪽은 더 좋아지고, 나쁜 쪽은 더 나빠져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세대·계층·지역·산업 양극화가 동시에 심해지면서 K자형 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바

로 K자형 양극화 현상이다. 소득·자산·성장·일자리·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은 1만 피(코스피 1만)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1만 2000을 넘어서 1만 5000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솔림 현상이 극심하다. 이 시점에서 평균의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평균의 함정이란 소득·자산·기업·성장을 등 주요 경제 지표 평균값이 극소수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의해 왜곡돼 대다수 서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특히,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이 성장을 끌어올린 구조에서는 산업 간·계층 간 격차·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제주 경제는 K자형 성장의 함정과 평균의 함정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상가상, 며칠 전 정부는 2000조원 투자 규모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웬일인지 제주는 투자 대상 권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 도정이 AX 대 전환과 기본 사회를 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은 건 여러모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AX 대전환 기반 조성과 기본 사회 구축을 위한 물적 자원 확보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대산 같다. 과연, 우리 대에서 해낼 수 있으려나 싶다. 우선, 전문가와 유경험자를 초빙해 국가 상위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액션플랜을 수립한 뒤, 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국책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며 제주도 나름의 노하우를 조금씩이라도 축적해야 한다.

사설

새 도지사·교육감 출범, 공약실천 충실하길

민선 9기 위성곤 도정과 진보성향의 고의숙 교육감 교육행정체제가 1일 출범했다. 위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취임식을 간단히 갖고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고 교육감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영상을 통해 취임사를 공개하고 교육현장을 방문했다.

위 지사는 인수위로부터 민선 9기 제주도정 100대 정책과제를 전달받았다. 민선 9기 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결정됐다. 인수위는 새 도정의 7대 목표로 ‘도민 중심’ ‘민생 안정’ ‘기본 사회’ ‘미래 성장’ ‘기후 경제’ ‘실용화’ ‘책임 행정’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생회복 추경 편성 등 100대 과제가 제시됐다. 고 교육감 역시 준비위로부터 5대 시책, 47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공약을 전달받았다. 새 교육청의 교육지표는 ‘모두

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 교육’이다. 5대 교육시책은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으로 결정됐다.

새로 출범한 두 지도자에게서는 도민의 기대는 크다. 역대 최대 득표율로 당선된 위 지사와 제주 첫 민선 여성 교육감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고 교육감의 책무는 막중하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공약 실천에 따른 재원 확보가 최대 난제이지만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제주가 현재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두 지도자의 공약 실천과 리더십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열린마당

AI 시대, 더욱 중요한 청렴의 가치

이 준 후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주무관

또한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만큼 중요한 것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자세다. 편리함을 앞세우기보다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작은 책임감과 신중한 판단이 모일 때 AI는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와 정보의 올바른 사용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작은 원칙을 지키는 실천이 국민의 신뢰를 쌓는 청렴한 행정의 출발점이다.

AI는 행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자의 자세다. AI 시대 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청렴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AI 기술과 청렴의 가치가 함께할 때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뉴스-in

이 대통령 “중앙과 지방정부는 동반자”

위성곤 지사 취임식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열린 민선 9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에서 축하 메시지를 대독해 전달.

이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위성곤 도지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께서는 저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이끌 막중한 소임을 맡기셨다”며 “서로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려는 책임의 무게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조.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이자 원팀”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할 때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변화가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점언.

○…서귀포시가 7월 1일부터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우산은 청사에 비치해 방문객과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대여 사업’을 추진하며 눈길.

1일 시에 따르면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은 시청 본관과 별관 출입구(2개소)에 각각 10개씩 총 20개가 비치되며 갑작스러운 우천이나 폭염 시 방문객과 직원 누구나 이용 후 제자리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

부미선 청정환경국장은 “폐현수막은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라며 “서귀포형 폐현수막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일상 속에서의 자원순환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백금탁기자

‘늦은 장마’ 비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해야

6월 30일부터 제주 지역 장마가 시작됐다. 평년보다 11일 늦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늦은 장마라고 했다.

장마에 접어들면서 비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장마 초반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는 등 사나운 기세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장마가 끝나는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시적인 대응 체계 가동이 우선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점검, 퇴적물 제거 등에 나섰으나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침수 상습 지역, 지하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현실에서 올 제주 장마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짐작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당부다. 철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와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장마철을 맞아 배수로 정비, 병해 확산 예방, 시설하우스 전기 시설 점검 등을 주문했다.

제주도에서는 장마 종료 시기 지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응급 복구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재난안전망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공유와 함께 양수기 등 수방 장비의 즉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취약지 현장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마가 끝나는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시적인 대응 체계 가동이 우선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점검, 퇴적물 제거 등에 나섰으나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침수 상습 지역, 지하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현실에서 올 제주 장마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짐작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당부다. 철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와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장마철을 맞아 배수로 정비, 병해 확산 예방, 시설하우스 전기 시설 점검 등을 주문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